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성경이야기

여러분, 혹시 게임이나 친구들과 놀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적 있나요? 계속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차!” 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세요. 혹시 요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